

보도자료

October 7, 2020

바스프, 건설화학 부문 매각 완료

2020년 10월 7일 – 글로벌 화학 기업 바스프의 건설화학 사업부문이 지난 9월 30일 자정부로 글로벌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 자회사에 매각되었다. 부채 상환 후 매각가는 31억 7,000만 유로(한화 약 4조 3천억 원)에 달한다. 매각된 건설화학 사업부문은 독일 만하임에 본사를 두고 새롭게 MBCC 그룹을 구성하게 된다.

바스프 그룹 운영이사회 멤버 사오리 두부르그(Saori Dubourg)는 “론스타는 이번 매각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향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카브 아웃(Carve-out)을 통해 빠르게 거래가 성사된 바에 감사하며, 건설화학 사업부문이 미래에 큰 성공을 거두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바스프 건설화학 사업의 매각 관련 사항은 2020년 4분기 전체 그룹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계약과 관련하여 9월 30일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2020년 3분기 현금흐름표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21일, 바스프는 론스타 자회사와 건설화학 사업부문에 대한 매각을 체결했다. 7,5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바스프의 건설화학 사업부문은 60개국 이상의 지역에 생산 사이트 및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약 26억 유로(한화 약 3조 5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론스타(Lone Star) 소개

론스타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본, 신용 등의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기업이다. 1995 년에 처음 설립된 이후 론스타는 총 850 억 달러 규모의 20 개 사모투자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건설 및 관련 업계에서 선도적인 사모펀드 기업으로 폭넓은 글로벌 투자 경험을 갖고 있으며, 유럽 및 북미에서도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론스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lonestarfunds.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스프 그룹 소개

바스프는 화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글로벌 화학기업이다. 바스프는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바스프 그룹에 근무하는 전 세계 약 11 만 7 천 명의 임직원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 및 국가에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바스프 그룹은 화학 제품, 원재료, 산업 솔루션, 표면처리 기술, 뉴트리션 & 케어, 농업 솔루션의 6 개 분야에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바스프는 2019 년 약 590 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바스프 주식은 독일 프랑크푸르트(BAS) 및 미국에서 미국주식예탁증서(BASFY)로도 거래되고 있다. 바스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basf.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